안타까운 죽음

향수병 앓던 日 유학생 끝내 저세상으로

3개월만에 귀국 3차례 자살 시도

우울증과 향수병을 앓던 유학생이 귀국 후 세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지난 26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J(여·24)씨가 숨져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발견했다.

J씨는 이날 오전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바람을 쐬고 들어오겠다"며 나온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가 처음 우울증을 보인 것은 고교시절. '내향적인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던 증세는 지난해 초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대학에 혼자 유학을 떠나면서 심해졌다.

J씨는 유학생활 중 향수병까지 겹치면서 결국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광주에 온 그녀는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이미 우울증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녀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과 일주일 전과 한 달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주위 사람들은 "J씨의 경우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유학을 떠난 게 증상을 악화시킨 것 같다"며 "일본에서 공부하다 한국에 돌아올 때도 가족들과 상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향수병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경영난 버텨온 40대 여사장 공장서 목매

은행 빚 2억 못 갚아 공장 경매 넘어가자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40대 여사장이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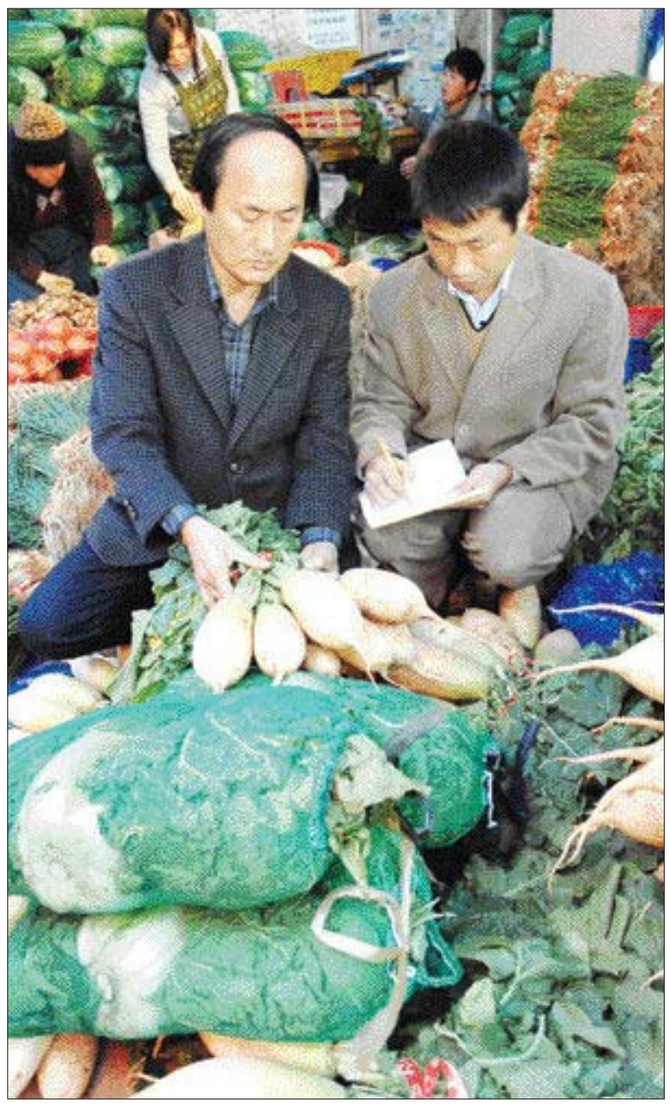
지난 26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시 북구 H공장에서 공장 대표 이모(여·47)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딸(2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블라인드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경영난에 봉착했다. 그 후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받는 등 회사를 살리려고 심혈을 기울였지만 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판로(販路)가 막혀 큰 어려움을 겪었다.

H 공장은 대출금 2억5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지난해 말 경매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공장을 27일까지 비워줘야 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이씨가 자신의 경영 실패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27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할 경우 7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인정보유출 국민은행 1,024명 20만원 씩 배상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유출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나원참 〈7369〉 김종두

건설사 여사장 골프 가르쳐 내기골프 꾀어 30억 가로채

법원, 50대 징역 3년 선고

어설픈 50대 초보 여성 골퍼가 '내기 골프'에 현혹돼 30억원을 뜯겼다.

건설업으로 수십억원 대의 돈을 번 김모(여·53)씨가 '내기 골프'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골프 옷을 사러 갔다가 골프에 탁월한 식견을 보이는 이모(58)씨를 만나게 된 것.

훤칠한 외모와 72타 이내의 '노핸디' 수준인 이씨는 골프를 가르쳐 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와의 '내기 골프'를 주선했다. 골퍼가 자신의 실력에 맞춰 9홀당 목표타를 정해 놓고 그 목표타 이내로 경기를 마치면 이기는 '핸디 치기' 방식이었다.

김씨는 프로급인 박씨에게 2년3개월 동안 20억원을 잃었다. '내기 골프'를 주선한 이씨는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김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박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오겠다"고 속인 뒤 9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선임병들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있다"

광주지법 판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 중 자살한 사병에 대해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7일 부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김모 이병의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과 소속 지휘관들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모욕과 직무태만은 결국 고인의 자살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육군에 입대한 김 이병은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뒤 선임병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해오다 신병휴가 마지막날인 지난 4월16일 제주도 서귀포시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가혹행위와 관련한 유서를 남겨둔 채 음독자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어선 군산 해상 침몰

선원 6명 실종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8km 해상에서 신안 선적 8.55t급 연안자망 어선 '제 2창원호'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면서 선장 임모(44)씨와 선원 등 6명이 실종됐다.

'제 2창원호'는 이날 오전 9시께 영광군 안마도를 출항해 충남 서산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 후 다른 어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당시 해상에서는 초속 18~20m의 강풍과 3~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군산해경은 사고해역에 경비함정 7척과 해군 경비함정 3척, 어업지도선 2척,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들 성매매 처벌법 '잘 안다'

'이것이 알고 싶다' OX 퀴즈 92점

성매매 관련 OX 문제 하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광주시민 23.7%는 성매매 피해자도 처벌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성적표'는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성매매 이것이 알고 싶다' OX 퀴즈대회에서 나왔다.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은 남녀 118명. 이중 28명(23.7%)은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OX 퀴즈에 출제된 문제는 4문항. '성매매 알선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가 가지는 채권은 무효다'는 문제의 경우 참여자 모두 정답을 맞췄다.

'성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은 갚아야 한다'는 문항은 91.5%(108명)와 98.3%(116명)가 정답인 '아니다'를 선택했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91.5% 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공 간부 2명 접대받아 중징계

쌍나팔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간부 2명이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들에게서 향응 접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 물의.

○…27일 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A씨 등 전남 모 지사 간부 2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 소장들로부터 노래방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는 몇 군데 휴게소의 소장이 동석했고 10명 정도 되는 참석자들의 회식 및 유흥비로 500여만원이 지출됐다고.

○…도로공사 호남본부 관계자는 "A씨 등이 감사 결과를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 공사 측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두 사람의 소명을 들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

/연합뉴스